

PRESS RELEASE

한국애브비, 임직원 자녀와 함께하는 '제 9 회 패밀리 사이언스 데이' 개최

대한민국 서울, 2019년 8월 12일 – 글로벌 바이오 제약 기업인 한국애브비(대표이사 강소영)가 서울 대치동 본사에서 임직원 자녀 30여 명을 초청해 '패밀리 사이언스 데이'를 지난 9일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패밀리 사이언스 데이'는 임직원 자녀들에게 다양한 의학 및 제약의 근간인 과학 원리를 생활 속에서 가족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임직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자 진행되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한국애브비 사이언스 데이는 임직원 자녀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매년 여름방학 시즌인 8월 둘째 주 금요일에 진행된다.

이번 사이언스 데이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오전에는 클레이 만들기 수업과 볼풀장이 있는 키즈카페를 운영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 참가한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럭키 드로우 이벤트를 진행해 비치가운, 색연필, 물총 등 여름방학 맞이 풍성한 선물도 증정했다.

오후에는 흥미로운 관찰과 실험을 통해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생명공학 수업에서는 장수풍뎅이의 생김새와 서식처 등을 탐구하고 디오라마 만들기를 통해 생태환경을 생동감 있게 표현해 봤다. 공학과학 수업에서는 실생활에서 아이스쿨팩과 공기 압력의 작용 반작용 원리를 익히고 이를 활용한 에어 로켓 등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6살 자녀와 함께 사이언스 데이에 참가한 한국애브비 박희진 과장은 "아이가 과학에 재미를 많이 느끼고 관심이 많아 매년 8월에 열리는 사이언스 데이를 잔뜩 기대하고 있다."라며 "평일에는

시간 여유가 없어 방학 때 과학관 방문 정도가 전부였는데, 사이언스 데이를 통해 아이가 직접 실험, 실습을 하고 과학 이론을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전했다.

한국애브비 강소영 사장은, "패밀리 사이언스 데이는 한국애브비의 사회 공헌 및 기업 문화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7년째 지속해 오고 있다"며, "바이오 제약 기업으로 그 근간이 되는 기초 과학인 화학이나 생명공학 등 분야 관련 체험 기회를 제공해 아이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함과 동시에 가족의 유대감을 높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캡션1] 한국애브비가 8월 9일 서울 대치동 본사에서 임직원 자녀 30여명을 초청해 '제 9회 패밀리 사이언스 데이'를 진행했다.



[사진캡션2,3] 한국애브비는 임직원 자녀 30여 명을 본사로 초청해 장수풍뎅이 서식처 탐구 및 디오라마 만들기와 아이스쿨팩, 에어로켓 등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애브비에 대하여

애브비는 연구와 개발 기반의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어렵고 심각한 질환들을 치료하는 혁신 치료제 개발에 헌신한다. 당사의 미션은 전문성, 헌신적인 직원들, 혁신을 향한 독창적인 접근법을 통해 네 개의 중요 치료 영역인 면역학, 종양학, 바이러스학, 신경과학 분야에 걸쳐 치료법을 현저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애브비의 직원들은 75 개국 이상에서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다. 당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abbvie.com 방문, 트위터 계정@abbvienews 팔로우, 페이스북과 링크드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애브비 (대표이사 강소영)는 130 명의 직원이 서울 본사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에 걸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상세 정보는 www.abbvie.c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